

# 대만의 인정투쟁 연구: 2000년대 이후 대만의 국·민 양당의 대륙정책 비교

이광수(국민대)

## I. 서론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즉 양안관계에서 대등, 존중, 호혜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양안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대만의 국가 지위를 둘러싼 현저한 시각차는 주권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현재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하여,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에 참여를 거부당하는 등 외교활동에 제약을 받는 한편, 남태평양, 중남미 소국(小國) 중심의 22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다.

무시에 대한 저항이론의 성격을 지닌 악셀 호네프트(Axel Hnneth)의 인정투쟁이론과 인간행동의 결정성향에 대한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의 최소주의와 중간주의 입장은 비대칭적 양안관계에서 존중받고 대등한 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윈윈하려는 대만의 대중국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다. 인정투쟁이론과 최소주의, 중간주의 이론을 통해 대만의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중국정책을 분석해 보니, 국민당은 이론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은 중국과 일치하지만, 현실적 접근법에 있어서 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이며, 통일은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반면에 민진당은 이론적으로는 대만 주체의식과 본토화 운동을 시행하며 대만독립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상유지’를 통한 대만의 자주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인정투쟁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적 방식을 통한 통일을 달성한다는 중국정부에 의해 강온(強穩) 양면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현재 대만은 통일도 독립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현상유지(status quo)’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최소주의’와 ‘중간주의’에 입각한 중국정책, 즉 넓고 깊은 형태의 정책이 아닌, 얇고 좁은 형태의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

1971년 유엔에서 퇴출된 이후 현재까지 대만은 여전히 불명료한 국제적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 대륙을 제외한 대만 영토(대만, 펑호, 금문, 마조 4개 섬) 내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대만은 대내외적으로 독립자주국가라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1990년대 후반 양안이 특수한 국가대 국가라는 ‘양국론’을 제기한 리덩후이(李登輝)나 ‘일변일국’론을 제기한 천수이벤(陳水扁) 등 일반적으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두 사람 모두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리덩후이 정부는 1991년 대만의 해기회와 대륙 중국의 해협회라는 반관반민의 기구와의 회담을 통하여 92년 양안이 공식적 만남을 실시하였고, ‘양안인민관계’ 조례를 체결함으로써 양안의 통일을 지향하는 듯 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천수이벤도 2000년 취임사를 통하여 ‘4불1몰유’를 발표하면서, 대만은 향후 독립을 지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양안관계의 구도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2008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대만을 집권해 온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정부 역시 출범 이후 중국과의 경제 교역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3불정책(독립, 통일, 무력통일)을 내세우면서 ‘현상유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즉 천수이벤 정부가 했던 대만명의를 유엔재가입 국민투표와 같은 돌출적이고도 충돌위주의 정책을 통해 대만의 안보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것이

다.

2016년 5월 4년 임기의 총통에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도 취임사에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현상유지’가 중화민국 헌정체제와 양안인민관계조례를 정책 추진의 기본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양안관계에서 대만인 정체성의 증가와 중화민국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대만의 인정투쟁은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당 특성, 리덩후이, 천수이벤, 마잉주, 차이잉원의 개인 특성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2000년대 이후의 양안관계에서 대만의 입장을 인정투쟁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글의 구성은 II에서 인정투쟁이론과 최소주의, 중간주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III에서 민진당 천수이벤 시기, IV에서 국민당 마잉주 시기, V는 민진당 차이잉원 시기를 VI 은 결론으로 되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인정이론, 최소주의, 중간주의

인정투쟁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를 통해 자긍심을 획득하며, 때로는 무시에 의해 자긍심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투쟁을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즉 인간의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자, 무시에 대한 저항이다. 인정(recognition) 개념을 처음 꺼낸 헤겔은 인간들 사이의 모든 갈등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인간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주장했다.<sup>1)</sup>

호네프는 푸코에게서 ‘투쟁 모델’을 찾아내고, 하버마스에게서 ‘의사소통 모델’을 계승하여, 두 모델을 결합한 것이 ‘인정투쟁(recognition struggle)’이다. 호네프는 ‘인정’을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개인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찾아낼 수 있는 심리적 조건으로 보았다. 즉 인정투쟁이 긍정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1990년대 대만 리덩후이 정부시기에 민주화 전환 이후에 시작된 대만주체의식 자각운동, 대만 본토화 운동, 대만인 정체성의 인식, 대만정명운동 등은 중국에 대한 대만의 인정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호네프의 인정투쟁이론은 먼저 사랑, 권리, 연대라는 세 가지 인정 유형을 설명한다. 인정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의 ‘사랑’ 형태의 원초적인 인정 형식부터 각 주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 관계 형태의 인정 형식 그리고 가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연대’ 형식의 인정이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세 가지 인정 형태를 거치면서 개인의 긍정적 자기 인식의 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sup>2)</sup>

하지만 인정에 대한 ‘무시’가 발생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을 거부하는 즉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무시에 대한 사회적 저항, 즉 인정투쟁이 발생한다. 무시 방식도 세 가지로 열거한다. 즉 폭력, 고문 등 신체적 가해를 통한 무시, 인격적 모독을 통한 무시, 특정한 생활방식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은 모든 형태의 무시 즉 인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나 모욕으로 이해되고, 분노라는 심리적 반작용을 통해 사회적 투쟁을 추진하는 동기가 된다.<sup>3)</sup>

1) “호네프의 대표이론- 인정투쟁은 긍정적 삶의 조건”, 한겨레신문, 2007. 5. 25

2) 호네프, 인정투쟁, 186쪽

3) 호네프, 인정투쟁, ?쪽

2016년 1월 대만 총통선거 기간에 한국에서 발생한 ‘저우쯔위(周子瑜) 국기 사건’은 대만인 특히 대만의 젊은 세대에게는 자신들의 국기라고 생각하는 중화민국의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중국인 네티즌들의 온라인 댓글 공격을 당하고, 공개사과를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격적 모독과 함께 대만의 위상을 평가절하 한데 대한 반발심과 분노가 일시에 표출되도록 작용했다. 차이잉원 총통의 압도적인 승리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표) 호네트의 인정투쟁

	개인, 소수 영역	시민사회, 단체 영역	국제사회 영역
인정 형식	사랑	법률	명예, 존엄, 단결
무시 형태	강제적 폭력	법률적 권리의 박탈	모욕, 비방, 배척

호네트는 인정의 단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인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투쟁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만인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도, 급진적 독립을 주장하는 이는 소수이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중국과 대만의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양안은 면적, 인구, 경제규모, 국방력 등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절감하는 대만인들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선택을 한다면 현상유지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캐스 R.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이 제기한 ‘최소주의(minimalism)’와 ‘중간주의(trimming)’ 개념을 통해서 대만의 인정투쟁이 보여주는 행태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공공정책과 행동경제학을 강의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정보국 국장을 역임했던 선스타인은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는 심각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통치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 리더는 ‘최소주의’와 ‘중간주의’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최소주의는 “근본적이거나 이론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오늘 할 일을 결정하는 입장”으로 보고, 중간주의는 “문제를 미루지 않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라고 정의한다.<sup>4)</sup>

최소주의자는 의견의 불일치가 심한 거창하고 이론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당면한 특정 사안만 해결하고자 노력한다(10장). 최소주의자의 입장은 합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행위에 유용하다. 때로는 가장 큰 문제들은 일단 제쳐두고 훗날에 해결하기로 약속하는 쪽이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하다. 사실 정부 기관에서는 이론적 논쟁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꼭 그런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고도 일을 진행해나갈 수 있다.

한편 중간주의(trimming)는 정부에서 한층 더 유용한 방식이다. 최소주의자와 달리 중간주의자는 문제를 미결 상태로 내버려두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종지부를 찍겠다고 열망하는 쪽에 가깝다. 그렇지만 중간주의자는 모든 관계자의 정당한 주장을 경청하고 또 배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간과되거나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간주의자는 대개 타협을 택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모든 관계자의 주장을 아우르는 해결책을 추구한다. 정부에서 일하는 데 중간주의는 필수적인

4) 캐스 R. 선스타인,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21세기 북스, 2015 p. 12-13

다. 정부 관료들은 서로 간의 의견충돌을 수없이 되풀이한다. 그들은 대부분 합리적이고 정보도 많다. 물론 그들도 때로는 잘못된 주장을 제시한다. 하지만 잘못된 주장이라도 관심사 자체는 일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 관심사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어야 한다.<sup>5)</sup>

양안 사이에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 있어서 쉽게 합의하기 힘든 커다란 시각차가 있으며, 대만 내부의 정치세력들에게도 통일과 독립을 두고 쉽게 타협하기 힘든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만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양안관계와 대만 정치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내부 단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주의'와 '중간주의'에 따른 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에 의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에는 곧바로 대만을 향한 미사일 발사 훈련이나 해·공군의 상륙훈련과 같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치솟고 전쟁발생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폭된다. 하지만 양안의 비정치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양안교류가 시작된 1990년대 초의 리덩후이 집권 시기부터 나타났다. 리덩후이 총통은 1988년 장징궈 전임 총통이 사망하자, 총통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그동안 대만의 공식 중국정책이었던 '대륙 공격을 통하여, 삼민주의로의 통일' 주장을 포기하였다.

1990년 정식으로 총통이 된 이후에는 내부 정치개혁을 통하여 만년국회를 해산하고, 계엄시기 비상조치법을 폐기한 리덩후이는 1991년 헌법수정을 통해 자유민주의 대만이라고 '대만'을 추가하는 한편, 더 이상 군사 동원을 통한 대륙 탈환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대륙 수복정책을 포기하고,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동시에 양안교류의 공식창구 개설을 위해 1992년 11월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의 회담을 추진하였다. 이 회의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一中各表)는 이른바 '92consensus(九二共識)'에 합의했다. 다음해인 1993년 4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왕다오한(汪道涵) 해협회 회장과 대만의 구전푸(辜振甫) 해기회 이사장이 회동하였는데, 이는 양안의 분단 이래 40여년만의 첫 고위급 회담이었다. [양안인민관계조례]를 설치하여 양안의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안은 이 시기 장저민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하여 일국양제 방식을 통한 평화통일을 제안하면서, 양안관계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대만은 속도조절을 통해 대만의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sup>6)</sup> 그러나 1995년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은 양안교류 시작 이후 처음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대만 총통의 자격뿐만 아니라 개인 신분으로서의 미국 방문도 비난하였다.

결국 오늘날까지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적대시하는 대만의 양국론 입장이 1999년 7월 9일 리덩후이 총통에 의해 대만과 중국은 각기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입장으로 표명되면서, 대만에 존재하는 중화민국이라는 구상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양국론 구상은 이듬해 2000년 1월 리덩후이 총통의 신년사에서 양안은 특수한 국가대 국가관계로서, 양안 현단계의

5) 캐스 R. 선스타인,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21세기 북스, 2015 p. 12-14

6) 1995년 1월 30일 장저민은 하나의 중국, 한 국가 두 제도 틀을 견지하고, 양안관계 발전을 위한 8가지 주장(江八點)을 제안하였고, 대만의 리덩후이는 1995년 4월 8일 '양안의 정상관계 수립을 위하여 대만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해야 한다는 6가지 주장(李六點)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실제적인 위상을 인식하고, 평등한 협상, 교류의 강화, 구동화이(이견에 대한 공감대 확대), 원원하기 위한 노력 경주라는 5가지 주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곧바로 만약 대만 분리 시도, 외국의 대만 점령, 평화통일 협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 Ⅲ. 천수이볜 시기 양안정책 2000-2008 江澤民 胡錦濤 習近平

천수이볜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1979년 발생한 민주화운동 성격의 [美麗島] 잡지 사건을 통해 1986년 창당한 민진당에 참가하였다. 2000년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분열로 인해 가까스로 승리하였지만, 리덩후이 전 총통의 대만주체의식운동을 승계하여, 대만본토화운동, 대만정명운동 등을 통하여 대만사회의 탈중국화 경향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첫 임기 초반에는 대만을 강조하지만, 양안교류의 확대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온 양면의 입장을 보였다.

#### 1. 전반기 : 4불1몰유

2000년 5월 천수이볜는 10대 총통 취임연설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군 열병’ 프로그램 제외하고, 2000년 국경절 연설문에서 ‘삼민주의 통일중국’ 구호를 읽지 않고, ‘자유민주 만세, 대만인민 만세’ 구호를 통해 대만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방했다. 또한 대만의 초기 명칭인 Formosa(아름다운 섬이라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한 ‘아름다운 포모사’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천수이볜 총통은 양안관계와 관련하여 ‘4불1몰유’ 즉 중국이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침범하지 않는다면, 대만은 독립선언, 헌법개정, 국호변경, 통일독립 국민투표 등 4가지를 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통일 지향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안교류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진행해 나갔다. 2001년 1월에는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와 마쭈다오(馬祖島)를 통해 중국의 푸젠(福建)성과의 우편, 교역, 통행을 정식 허용하는 ‘소삼통’(小三通)을 실시하였고, 중국인들의 대만 방문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2002년 8월 3일 천수이볜는 대만의 공식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의사를 밝히면서 ‘해협 양안에 각각 국가가 한 개씩 존재한다’는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천명하였다. 한편 당시 대만의 중국정책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있던 차이잉원 대륙위원회 주임은 2002년 8월 5일 일변일국론 제기 후의 양안정책을 4가지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대륙정책의 기본축은 변화하지 않을 것. 양안경제무역정책은 지속 발전할 것. 건설적인 양안상호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 중국이 양안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으로 대만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양안관계의 악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 2. 후반기 : 유엔가입 공민투표

2004년 3월 20일 천수이볜 총통이 부패혐의로 인해 지지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총탄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천수이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중국에 대만인의 민주적 선택을 받아들이고, 양안 지도자가 상호 성의와 선의를 보여 평화안정, 협력호혜라는 새

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후 2005년 1월에는 분단 55년 만에 양안 간 전세기 직항을 허용하는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2005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비평화적 방식 즉 군사적 대응을 승인하는 내용의 '반(反)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만인의 우려를 확장시키고, 양안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5년 3월 4일 후진타오(胡錦濤)는 양안관계발전을 위한 네 가지 방침을 언급하였는데, 대만동포, 양안교류 촉진, 양안평화,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본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안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의 국민당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2005년 4월 29일 베이징에서 련잔(連戰) 대만 국민당 주석과 후진타오 국가 주석 겸 중국공산당 총서기와의 국공 수뇌회담이 60여년 만에 열렸다. 이 회의에서 92공식을 인정하는 기초에서 양안협상의 회복 추진, 적대 국면 중단, 평화협상 노력, 양안 경제무역교류와 범죄 공동대처 시스템 구축과 상호 직항, 3통, 농업 교류, 국제공간의 대만 참여 확대, 국공양당 정기적 소통 플랫폼 구축 등 5가지를 합의했다.

한편 천수이볜 총통도 이 합의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친민당의 송추위, 신당 대표도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공산당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진행하고, 천수이볜 총통은 송추위 대표를 통하여 후진타오 총서기의 대만초청의사를 전달하는 등 2005년 5월 중국-대만 정부지도자 간 공식 회담을 제의하지만, 중국은 대만 독립을 포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일축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5년 8월 2일 천수이볜은 미국 포르모사 재단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대만의 국가 지위와 관련하여 중화민국을 활용한 4단계 진화론을 피력하기도 한다. 즉 1단계로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 건국한 대륙에 있는 중화민국이 있고, 2단계 1949년 국공내전 결과 대만으로 옮긴 중화민국을 거쳐, 3단계 냉전시기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대만에서의 중화민국, 4단계 민주주의적 발전을 성취한 현재의 '중화민국은 바로 대만'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양국론 입장에 대해 마잉주 당시 대북시장은 2005년 8월 5일 양안은 일변일국이 아니며, 두 개 국가도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국양구 즉 한 국가 2개 지역으로 나뉜다는 주장을 하고, 천수이볜 정부가 시도하는 법리대독, 정명제헌, 대만공화국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06년 2월 27일 천수이볜 총통이 국가안전회의에서 '국가통일회의' 해체와 '통일강령' 삭제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통일에 대한 정책적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천수이볜은 중국이 2005년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국통강령 폐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입장은 중국에게는 더욱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천수이볜 정부의 탈중국화와 독립노선은 임기 후반에 들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년 3월 4일 천수이볜은 대만은 독립, 새로운 헌법, 국호의 개정, 발전이 필요하고, 좌우노선상의 차이는 없지만, 오직 통일이냐 아니면 독립이냐는 문제만 있다는 소위 '4요1몰유'(四要一沒有)의 더욱 선명한 독립노선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7년 쌍십절에는 "대만 유엔 가입"이라는 표어를 총통부 탑루 외벽에 부착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만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대화는 지속되었다. 2007년 4월 28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와 련잔 국민당 전(前) 주석 간의 회담이 진행되면서, 양안의 위기상황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8년 대만은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었다. 천수이볜 총통은 200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중

국의 헌법이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대방인 중화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주권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생존공간을 봉쇄해 왔으며, 과거 7년 동안 대만을 향하여 1,328발에 이르는 전술미사일을 발사해 왔고, 대만해협에 방공식별구역을 규정하여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베이징에 양안평화발전과 관계정상화, 하나의 중국 틀 강요를 중단하여 평화적 대화와 양안발전 촉진, 대만민주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시도 중단 등의 5가지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대만은 자신의 독립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8년 3월 4일에 대륙위원회는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이며, 국호는 중화민국이고, 주권은 2300만 대만인민으로부터 나온다면, 하나의 중국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안관계는 비록 전쟁이 발생할 것 같은 강경한 입장표명과 제재조치를 통한 첨예한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는 지속되고 확대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2008년 3월 7일 대만 내 정부는 대륙출신 결혼 이주민의 대만 체류와 정착조건을 완화하여 양안 인적교류의 폭을 확대하였고, 중국 농업부는 대만농산품의 중국 판매에 있어서, 대만 중남부 지역의 과일농민을 우대한다는 이른바 '혜대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적교류와 경제적 교역에 있어서는 양안관계의 발전이 계속되었다.

#### IV. 마잉주 시기 2008-2016

마잉주는 국민당 출신으로 리덩후이 전 총통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고, 천수이볜 총통 후반기에는 대북시 시장으로 비교적 높은 지지세를 구축하였다. 천 총통 일가의 부패사건으로 인해 2008년 총통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진당의 세창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마잉주 총통은 대북시장 재직 시에도 하나의 중국 입장을 받아들이는 일국양구론을 주장하면서 민진당의 대만 독립 노선을 통한 대만해협의 긴장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만의 국제적 지위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현상유지' 입장을 양안관계 기본 정책으로 제시했다.

##### 1. 전반기 : 현상유지, 3불 정책

2008년 3월 22일 제12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가 당선되었고, 동시에 진행된 민진당이 제안한 대만의 유엔가입 안건, 국민당이 제안한 유엔회복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는 둘 다 과반득표 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이 표결 결과는 대만 유권자들이 천수이볜 정부가 추진했던 법률적 독립, 대 중국 강경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천수이볜 정부의 외교공간 참여와 확대정책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이슬람 테러주의 종식을 우선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부시행정부에게는 천수이볜 총통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지역평화 구도를 해치는 '문제야기자(trouble maker)'로 인식되도록 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대만 총통 선거 이틀 뒤인 3월 24일 양안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대만의 독립과 유엔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아직 정권 이양이 안된 시점에서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2008년 3월 27일 대만의 민주체제, 중화민국의 존재, 양안간의 대등·존엄·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의 대만민중에 대한 여론조사는 양안관계의 경색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90%가 현

상유지를 지지하는 한편, 80%가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로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새 정부 임기 시작에 앞서 마잉주 정부는 부총통 샤오완창(蕭萬長)을 2008년 4월 12일 보아오(博鰲)포럼에 참석하도록 하여, 후진타오 총서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안사이의 관계개선의 시발점을 만들었다.

2008년 5월 20일 총통에 정식 취임한 마잉주는 “인민이 분기하여, 새로운 대만을 만들자(人民奮起, 台灣新生)”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소위 ‘삼불(三不: 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 정책’을 발표하고, 양안은 같은 중국 즉 중화민국에 속하며, 현상유지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정책 노선을 천명했다. 다음 날인 5월 21일에는 현상유지 입장에 대해서 전임 천수이볜 정부의 법리대독을 반대하고, 중화민국의 헌법 구조하의 현상유지, 대만지위의 현상유지라고 설명했다.

마잉주 정부 전반기에는 양안 사이의 정부간, 정당 간 즉 국공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2008년 5월 28일에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와의 국공 수뇌회담을 진행했다. 또한 6월과 11월에는 양안 정부 간 회담을 번갈아 개최하였는데,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양안회담에서는 주말 전세기 운영과 중국인의 대만 관광 허용에 합의하여, 대만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했고,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2차 양안회담에서는 여객 직항 전세기 확대, 화물 직항 전세기 운영, 해운 직항 개방 합의 등 양안간의 통항(通航), 통신(通信), 통상(通商) 교류확대를 의미하는 ‘대삼통(大三通)’이 이루어졌다.

양안관계의 양적, 질적 발전에 따라 중국은 2008년 12월 31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새로운 양안관계 구축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반영한 ‘호6점’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도 4월과 12월 두 차례의 정부 간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난징에서 개최된 4월 26일의 제3차 양안회담에서 공동으로 범죄 퇴치와 사법·금융협력, 정기항공 운영, 중국자본의 대만 진출 개방을 합의하는 등 사회분야의 협력과 자본금융의 협력도 시작되었다. 이후 6월 30일에는 대만, 중국자본의 대만 진출 개방이 발표되고, 11월 16일에는 양안 간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12월 22일에는 타이중에서 제4차 양안회담이 열려, 어업 노무 협력, 농산품 검역, 표준검사·인증 협력 합의가 있었다.

한편 국공 정당교류도 지속되어 2009년 5월 26일 후진타오와 우보슝의 국공 수뇌회담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2010년 4~8월사이에는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대만에 연쇄적으로 방문하였는데, 한정(韓政) 상하이시장(4월), 황샤오징(黃小晶) 푸젠성장(5월), 류치바오(劉奇葆) 쓰촨성 당서기(5월), 뤼쑤산(呂祖善) 저장성장(6월), 황화화(黃華華) 광둥성장(8월)이 방문하면서 양안사이의 정치적 교류도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는 양안사이의 경제, 교육, 관광 부문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5월에 양안에 상호 관광사무소가 개설되고, 9월 2~8일에는 중국의 차이우(蔡武) 문화부장이 대만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양안의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2010년 9월 12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한편 2010년 11월 마잉주 총통은 일본에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대만영토”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2011년에는 대만 교육당국이 중국의 일부 대학의 학력을 인정하고, 중국 유학생의 대만대학의 입학을 허용하여,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2. 후반기 : 92컨센서스, 일국양구



마잉주 정부의 전반기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대만 경제발전에 방점을 두었다. 따라서 양안의 경제적 교역량 증대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기본협정과 같은 구조적 협력통로도 구축하고, 금융, 자본의 교역 이외 교육, 문화부문의 교류도 대폭 확대되었다. 하지만 양안교역의 확대 추세를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함께 증가하였다.

2012년 1월 마잉주 총통이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에게 크지 않은 격차로 이기면서 총통선거에서 재선되었다. 마잉주 총통은 2013년 6월 10일 우보슝 국민당 주석의 방중에 앞서, 정부는 ‘하나의 중국, 각자 표술’이라는 92컨센서스 원칙을 견지하면서 양안관계 발전을 도모한다면서 전반기의 양안관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중화민국의 헌법과 3불 원칙이 양안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라면서 대만의 국가적 지위를 강조하는 입장도 동시에 표명하였다. 이는 전반기의 국정 방향과 미세한 차이가 드러난 발언이다.

이러한 입장의 선회는 이틀 뒤 6월 12일에 있었던 대륙위원회의 추가설명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다. 양안은 하나의 중화민국이며, 자유(대만)지구와 대륙지구라는 2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마잉주 정부와 국민당과의 교류를 지속했다. 2013년 6월에는 새로이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 총서기와 우보슝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과의 회동이 베이징에서 있었다.

2014년 2월 11~13일에는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서 6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6월 25일에는 타이베이에서 2차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중국의 대만정책 담당부서인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과 대만의 중국정책 담당부서인 대륙위원회 주임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하여, 양안의 경제문화교류 수준을 좀 더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안사이의 정치와 통일담당 부서의 교류는 양안경제교역의 강화 추세와 더불어 대만인, 특히 젊은 계층으로부터의 위기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양안관계의 심화에 대한 반발은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여일에 걸친 입법원 점거농성을 통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체결반대’ 시위로 폭발하였고, 그 결과 2014년 11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이 야당인 민진당에 참패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14년도부터 시작된 국민당과 마잉주의 양안관계에 대한 반대 입장은 2015년에도 지속되면서, 민진당 주석 차이잉원은 2015년 5월 3일 국민당 주리룬 주석의 방중에 앞서 주리룬 주석은 대만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sup>7)</sup>

한편 마잉주 정부는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중국 시진핑과 회담함으로써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두 사람은 양안의 지도자 신분으로 만났지만, 서로 국가주석이나 총통 직함이 아닌 ‘선생’으로 호칭하고, 하나의 중국 입장을 다시 언급하면서, 대만 내부에서는 마잉주 총통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졌다.

## V. 차이잉원의 시기: 2012-2016

차이잉원은 천수이볜 정부 전반기에 양안관계와 중국정책을 총괄하는 대륙위원회의 책임자로서 4불1몰유 등 초기 대만독립 노선의 이론적 틀을 작성했다. 대만 남부 부유한 객가인 출신배경과 영국, 미국 유학 경험을 통해 자유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차이잉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경험과 직접 참여한 선거에서의 패배를 경험

7) 沒有民共關係？蔡英文：兩岸關係就是兩岸關係，林瑋豐 2015年05月03日，風傳媒  
<http://www.storm.mg/article/48249>

하면서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 1. 전반기: 2012년 선거, 중화민국은 망명정부, 대만공식

2010년 5월 민진당 주석 차이잉원은 대만지위와 주체성과 관련한 논쟁에서 ‘중화민국은 망명정부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의 대만은 수십 년 동안 권위주의 통치와 중국특성의 합체였으며, 현재 중국특성과 대만특성, 대만주체意識 사이에 미묘한 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전 중국특성이 주체이고, 대만특성이 객체였으나, 현재 주체가 뒤바뀌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차이잉원의 “중화민국은 망명정부이다.”라는 입장은 1949년 이후 대만에 이전하여 세워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대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 대만주체意識을 강조하는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국민당은 차이잉원의 주장에 대해 천수이볜 정부는 어떤 정부냐고 반문하면서 차이잉원의 분열주의적 시각을 비판했다.<sup>8)</sup>

차이잉원은 2011년 대만공식을 통하여, 중화민국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중화민국이 곧 대만이며, 대만이 곧 중화민국이다. 현재의 중화민국정부는 더 이상 외래정부가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중화민국이 대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sup>9)</sup> 과거 60년간 중화민국이 원래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중화민국은 오직 대만에서만 존재하였다. 대만이라는 땅과 인민과 함께 결합한 것은 현재 절대다수 대만인이 인정한다. 오늘날 절대 다수 대만인민이 모두 “대만이 곧 중화민국이며, 중화민국이 곧 대만이다. 이는 중화민국의 새로운 탄생이다.”라는 시각을 인정한다. 차이잉원은 현재 중국국민당이 60년에 걸쳐 대만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경험하고, 총통 직선제 경험을 거쳐 “현재 중화민국정부는 외래정부가 아니고, 대만의 정부이다.”라는 것이다.

비록 현재의 국민당은 대중국주의 경향을 취하고, 집정 성적에도 불만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국민당은 대만민주화에 참여하는 경쟁자이다. “우리는 국민당을 포용할 수 있고, 중화민국 정부를 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대만의 관념 안에 포용하는 것이다.” 대만인은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인은 대만인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차이잉원은 만일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산업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대만사회는 가장 분열되고, 가장 대립되어 있는 것은 국가 정체성이다.<sup>10)</sup>

차이잉원은 대만사회가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며, 중화민국 성립 시기에 대만은 중화민국의 범위에 있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대만에 온 중화민국 통치자는 권위주의적 통치자이며, 228사건, 백색공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대만 인민이 국민당에 대해 공포, 불안을 느끼는 정권으로 생각하도록 하였다.

차이잉원은 현재 집정자는 줄곧 과거의 중화민국의 역사에 남아, 대만주권에 대한 주장을 경시하는 것은 중국이 현재 대만주권에 대한 위협에 부주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부에게 대만은 2300만이 함께 만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다. 대만인은 주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는 중화민국을 포용하기를 원하며, 왜냐하면

8) 蔡英文：中華民國是流亡政府- 政治- 自由時報電子報 2010-05-26

<http://news.ltn.com.tw/news/politics/paper/398509>

9) 蔡英文：中華民國就是台灣, 2011/10/08

<http://www.cna.com.tw/topic/Popular/2456-2/201110080060-1.aspx>

10) 蔡英文：「台灣共識」就是我們要走的路

[http://www.dpp.org.tw/news\\_content.php?sn=5365](http://www.dpp.org.tw/news_content.php?sn=5365)

중화민국이 대만과 같으며, 대만이 곧 중화민국이기 때문이다.”

2012년 총통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차이잉원은 대만공식을 견지하면서 대만독립입장을 폐지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4년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대만독립당강’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느냐는 네티즌의 질문에 대해서, “대만독립당강은 민진당 창당시기 제시된 목표이며, 동시에 민진당원과 대만인민이 추구하는 이상이다. 라고 언급하고 또한 대만의 민주화에 따라 깊은 ‘대만의식’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대만정체성과, 독립자주라는 가치의 견지는 이미 젊은 세대의 ‘천연 성분(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었음을 의미)’ 이 되었다. 이를 어떻게 수정하고 폐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대만독립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sup>11)</sup>

## 2. 2016 총통 선거 전후: 현상유지, 92공식 역사적 사실

2016년 1월 16일 민진당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주리룬 후보에 3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격차로 승리했다. 차이잉원의 승리 요인에는 국민당의 분열과 지지세 하락 이외에도 마잉주 정부의 대중국정책에 대한 대만유권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의 해바라기 학생운동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친 중국적 정책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총통 선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차이잉원은 당선 후 첫 번째 외신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의 양안관계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양안관계에 있어서 (대만은) 중화민국의 헌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둘째, 중국의 도발이 없을 경우에, (대만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은 2000년 처음으로 민진당이 집권한 천수이볜 시기의 양안관계와는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92공식의 인정하지 않고, 1992년에 양안의 접촉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식의 언급은 ‘답을 쓰지 않은 답안지’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성 논평을 하였다.

2016년 5월 20일 차이잉원의 취임행사는 전반적인 기조와 구체적인 행사배치에 있어서 이전의 천수이볜, 마잉주 시기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었다. 우선 ‘대만의 빛(臺灣之光)’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만문화를 원주민 문화, 한인 문화, 객가 문화의 다원적 융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일본 식민지 시기의 대만인의 항일운동과 2.28 사건을 통해 국민당에 의해 희생된 대만인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대만주체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차이잉원은 경축행사에서 2차례 중화민국의 국가 ‘오당소종(吾黨所宗)’을 제창했는데,<sup>12)</sup> 민진당 출신의 차이잉원 총통이 ‘三民主義, 吾黨所宗(삼민주의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는 가사 첫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국민당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민진당 인사들이 꺼리던 상황이었다. 대만인들은 차이잉원이 국가를 제창하고 특히 ‘우리당이 따를 길’ 부분을 불렀다는 점에서 먼저 가치관이 틀리더라도 중화민국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다음으로 중국에게도 ‘구동존이’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만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이잉원은 취임연설에서 자신의 양안정책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했다.<sup>13)</sup>

11) 蔡英文：台獨黨綱是台灣人的追求與理想，顏振凱 2014年07月19日 13:20  
<http://www.storm.mg/article/33593>

12) 蔡英文首度開口唱“吾黨所宗” 520就職不一樣？少康戰情室 20160520  
[https://www.youtube.com/watch?v=K6t5nyNN\\_xs](https://www.youtube.com/watch?v=K6t5nyNN_xs)

첫째, 중화민국 헌정체제에 따라 양안의 현상을 유지하겠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 대만의 중화민국도 국가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둘째, 양안관계는 국공관계로 보지 말아야 한다. 즉 국공회담이나 국공논단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사이의 정당 간 접촉이며, 대만의 또 하나의 정치적 실체인 민진당의 지위,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양안 접촉을 통해 체결된 협상교류의 성과를 기초로 계속적으로 양안의 평화안정과 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는 양안사이의 대결과 분쟁보다는 평화적 화해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넷째, 양안사이에 소통할 것이며, 중국이 도발하지 않으면 예측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다섯째, 2015년도에 제기한 바 있는 3가지 유리, 3가지 견지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sup>14)</sup> 여섯째, 1992년 있었던 양회(해기회와 해협회)사이의 회담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2공식'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양안사이에 '정보공개, 대등존엄, 대만민회의 지지'라는 기준이 충족된다면, 2015년 11월에 있었던 시진핑과 마잉주의 회담처럼 자신도 시진핑과의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이잉원의 양안관계 정책은 온건한 분리주의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비쳐진다. 대만을 중심으로 놓고,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지만, 천수이볜처럼 대만독립이나 유엔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와 같은 법적 독립이나 대만정명 운동 같은 노골적인 탈 중국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잉주처럼 친 중국적 양안교류 확대 강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으면서 중화민국 헌정체제의 견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차이잉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만내부의 범람세력이나 중국은 천수이볜이 법리대독(대만독립), 강성(hard)대독, 직접대독, 문화대독의 입장을 띠고 있다면, 차이잉원은 감성대독, 연성(soft)대독, 우회대독, 문화대독의 유연한 독립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V. 결론

국가를 강대국, 중진국, 약소국으로 분류한다면 대만은 약소국에 해당한다. 약소국의 가장 큰 외교적 목표는 생존이다. 탈냉전 시기의 생존은 경제력이 중요하다. 냉전시기에 비해 안보의 중요성이 약해졌지만, 대만은 특유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탈냉전 시기의 안보는 과거처럼 영토탈취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제질서는 냉혹한 무정부 상태이므로 물리력에 기반 한 분쟁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약소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필연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게 되며, 강대국은 약소국의 안보를 보완하는 대신에 약소국의 자주성의 양보와 같은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무기구매 혹은 국제공간의 분쟁에 대해서 지지 또는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Cato 연구소 Ted Galen Carpenter 는 2016년 대만선거가 차이잉원의 총통당선과 민진당의 입법원 다수의석 확보로 귀결된 이후 3월 15일 [The National Interest]에서 베이징은 'Finland Option'을 고려하면서, 대만영토를 귀속시키려는 요구를 포기하고, 미국과 대만

13) 《520就職演說全文》 蔡英文：實現「世代正義」是新政府重責 願與對岸持續對談TV 54 三立, <https://www.youtube.com/watch?v=4RC2VSvIMSM#t=319.180083>

14) 민진당의 차이잉원 주석은 국가의 자유민주발전, 지역평화안정, 양안호혜왕래에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하고, 정부정책결정의 민주화와 투명화, 교류과정에서의 다원적 참여와 기회평등, 교류성과의 공익 수호와 사회 공유 등 세 가지를 견지하는 것을 양안관계 처리원칙으로 밝힌바 있다.

<http://www.chinanews.com/tw/2015/01-30/7019645.shtml>

의 동맹관계를 중단하고, 중국인민해방군 일부가 대만에 주둔하는 등을 서로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소위 대만의 ‘핀란드 모델’은 1948년 소련의 위협을 느낀 핀란드가 소련과 ‘핀·소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여, 핀란드가 소련의 적국과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또한 타국이 핀란드를 이용하여 소련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등 외교와 내정에서 소련 입장을 반영하고, 핀란드는 명의를상 민주자치의 독립지위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대만의 핀란드화는 대만이 핀란드, 중국 대륙이 소련에 해당한다.

대만문제의 핀란드 모델 방식의 해결은 일찍이 2010년 포틀랜드주립대학 Bruce Gilley 교수가 [Foreign Affairs]를 통해 발표된 바 있는데, 길리 교수는 ‘위험하지 않은 해협: 대만의 핀란드화는 미국안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Not so Dire Straits: How the Finlandization of Taiwan Benefits US Security)’에서 마잉주 시기 대만이 ‘핀란드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은 미·대동맹관계의 중단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여, 대만중립화를 이루는 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카펜터와 길리의 대만의 핀란드화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Zindy Ilman 교수는 4월 14일자 [National Interest]에서 카펜터의 핀란드 옵션은 미국, 대만, 중국 세 국가 사이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은 국가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대만 포기는 근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국내적 합법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다. 셋째, 대만의 지리적 위치는 중대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아도 대만과 핀란드, 중국과 소련은 다르다. 냉전시기 핀란드는 주권독립국가로서 유엔 회원국이었다. 하지만 1949년 이래 대만과 중국은 유엔과 수교국들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양안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적이 없으며, 타국과의 외교관계도 동시에 체결할 수 없다. 즉 핀란드와 소련은 국가 대 국가 관계였으나, 대만과 중국은 전체적으로 중국에 속해 있는 비 국가와 국가의 특수한 관계이다. 이외에 소련은 냉전시기부터 미국과 패권경쟁을 해왔지만, 중국대륙은 1979년 이후 구미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진입했다.

미국 학자들이 대만의 핀란드 모델 혹은 핀란드 방안을 제기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만해협정책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가장 주요한 것은 대만의 위기감과 초조감을 불러 일으켜, ‘중국위협론’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양안의 분단이 70년에 달하며, 양안은 과거 8년간 평화발전과 화해의 길을 건너왔다. 양안의 문제는 양안 인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sup>15)</sup>

## <참고문헌>

악셀 호네트 지음,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월의 책, 2011  
캐스 R. 선스타인 지음, 이시은 옮김,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21세기 북스, 2015  
최소주의와 중간주의라는 방법론, 한겨레신문, 2015-02-12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78248.html>

---

15) 王正, 台湾「芬兰化」只是笑话, 中国时报, 2016年04月27日  
<http://www.chinatimes.com/cn/newspapers/20160427000497-260109>

홍순도, 대만 차이 총통 박 대통령 데자뷰 같은 경악 지지율, 아시아투데이, 2016. 11. 2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128010019070&ref=search>  
乔侠青, 解谜“九二共识” 想象民共交流, 2015. 11. 13  
<https://theinitium.com/article/20151113-taiwan-dpp-and-cpc/>